

# 일본

## 도시계획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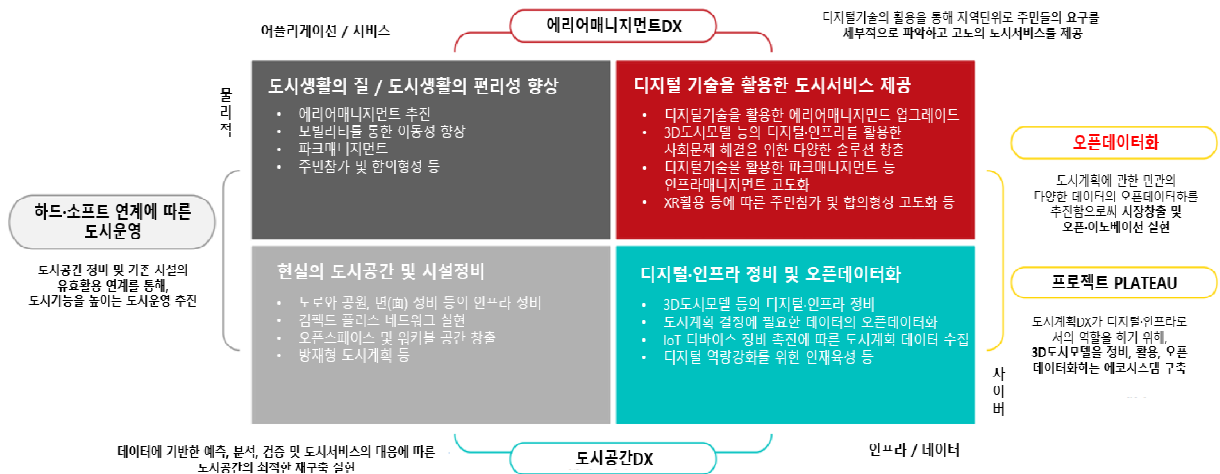
출처 : 도시개발의 디지털 전환 실현에 관한 컨퍼런스([https://www.mlit.go.jp/toshi/daisei/toshi\\_daisei\\_fr\\_000050.html](https://www.mlit.go.jp/toshi/daisei/toshi_daisei_fr_000050.html))  
 도시 만들기의 디지털 전환 실현을 향한 비전(<https://www.mlit.go.jp/toshi/daisei/content/001490539.pdf>)

### 도시계획의 디지털시대에서 디지털전환시대로 변혁

- 일본의 도시는 저출산 고령화, 국제경쟁력 강화, 도시와 지방의 격차 등의 다양한 과제가 복잡화·심각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했음
- 디지털화란 '도시인프라 디지털화, 절차의 온라인화, 데이터를 활용한 시책 입안, 디지털 인재육성 등'을 말하며 이를 통해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여왔지만 코로나19를 통해 한계가 보였으며,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을 포용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라는 플랫폼의 변화가 요구됐음
- 이제는 인터넷과 IoT, AI 디지털트윈기술 등을 활용하여, 도시계획의 공간적·시간적·관계적 제약을 넘어 그 시스템을 변혁(變革)함으로써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 및 발굴하고, 과제에 대응하는 디지털전환(DX) 필요

### 새로운 가치 창출과 문제해결을 위한 4개의 중점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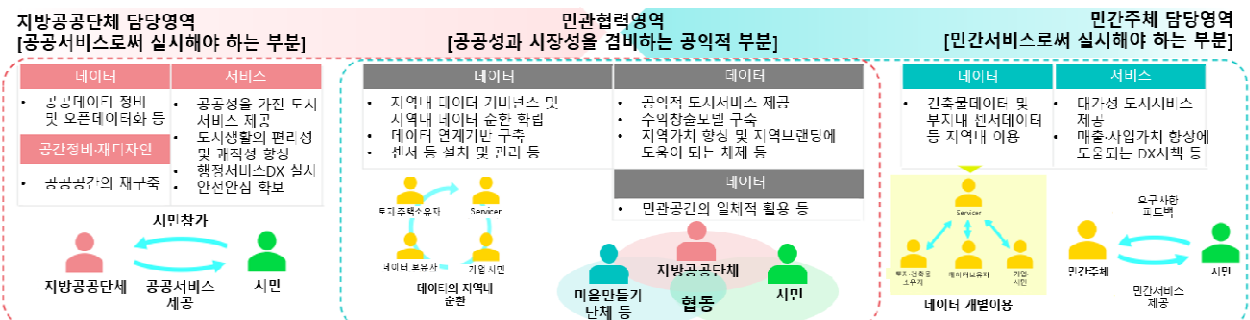
- 도시계획DX에서는 지속적 도시경영, 개인 맞춤형 도시, 기동적이고 유연한 도시설계라는 3개의 비전 제시



- 비전에 대한 실현 목표로서 4개의 중점목표(도시공간DX, 에리어메니지먼트DX, 데이터 고도화 및 오픈데이터화, 3D 도시 모델 정비·활용 및 오픈데이터화)를 설정하고 추진
- 4개의 중점테마는 다시 대응하는 13개의 목표와 14개의 세부목표를 정하여 추진

### 주체별 역할분담을 위한 모델 구축

- 지속가능성과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공공단체, 민간기업, 민간단체, 시민 등 각 주체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 민관협력영역에 대해서는 공동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역할에 대해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
- 각각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 민관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 도시계획 디지털전환의 추진모델

		지역과제 정리	도시계획DX 비전	중점테마
			정책목표 설정	시책 입안
도시계획 DX 원칙	서비스 어프로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만들기 분야에서 디지털 활용이 더딤</li> <li>시민QoL 향상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책이 나타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비전 책정</li> <li>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도시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전책정을 위한 스마트시티 민관협의회 설치</li> <li>방재 어플리케이션 및 이동서비스 제공</li> </ul>
	데이터 구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만들기 계획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 않음</li> <li>물리적 환경평가에 대해서만 정책을 평가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책정절차에 있어,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경영 실현</li> <li>Well-being에 착목하여 정책 평가지표 책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책정절차에 있어 3D도시 모델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 도입</li> <li>QoL에 착목한 새로운 정책 평가지표 도입</li> </ul>
	지역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시티 및 에리어매니지먼트의 이니시에이티브를 민간기업에 의존</li> <li>어떤 것부터 손을 대면 좋을지 모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의 역할분담 명확화와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li> <li>지역의 디지털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만들기 단체 등과 연계한 민관 컨소시엄 설치</li> <li>국가의 인재육성프로그램이나 인재파견제도 활용</li> </ul>
	민관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 맞춤형 서비스 및 온라인 절차에 관한 사용법이 불편</li> <li>데이터가 오픈되어 있지만 갱신 또는 이용되고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I / UX 편리성 개선</li> <li>오픈데이터의 사용이 용이하게 함에 따른 새로운 오픈.이노베이션 창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서비스나 오픈소스를 이용한 시민맞춤형 서비스 설치</li> <li>산.학.관.시민이 연계하여 데이터의 오픈화와 정비·갱신·활용에 관한 절차 도입</li> </ul>
	Open by Defau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엇이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오픈화 하지 않음</li> <li>과거의 공공데이터가 오픈에 필요한 원칙을 충족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데이터의 오픈데이터화 추진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창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pen by Default 및 Open by Design의 개선점 색출</li> <li>표준화되지 않은 과거 데이터라도 준(準) 오픈화하여 공개</li> </ul>

### 충남도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디지털전환의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지역 간 격차 등의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충청남도에 대해, 상호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발전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비전과 주체별 역할 설정 및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로드맵 제공
- 충청남도는 특정 분야에 있어 이미 디지털트윈을 경험한 적이 있으므로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시책의 확대 및 발전에 관한 전략 제고 및 시책의 통합적·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립에 관한 구상 제시

임 현 도교도시대학교 도시생활학부 연구원

- ✓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실현에 있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구체적 실현 방안과 주체별 역할에 관한 지침으로써 활용 가능
- ✓ 디지털전환은 단기간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정확하고 빠른 성과를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선진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의 전략적인 접근 필요